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동향분석팀	직 위	연구원	성 명	정혜선
출장기간	당 초	2007. 9. 3-8	출장지	당 초	인도네시아	
	변 경	"		변 경	"	
출장목적	- 수원국 정부-공여기관의 협력체계 사례조사 -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개발원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경비부담	우리원 부담(연구관련사업비) (일비 939천원+ 항공료 750천원 = 1,689천원)					
주최기관	과제명: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					
방문기관		면담자		면담내용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Dr. Surjadi Soeparman 외 2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여성정책 및 공여기관과의 협력체계		
UNFPA		Ms. Martha Santoso Ismail 외 1인		수원국에 대한 UNFPA의 정책 및 사업, 성 주류화 전략		
CIDA Jakarta		Ms. Francisca Indarsiani 외 3인		수원국에 대한 캐나다의 ODA 정책 및 사업, 성 주류화 전략		
GTZ Jakarta		Ms. Ute Jugert 외 2인		수원국에 대한 독일의 ODA 정책 및 사업, 성 주류화 전략		
KOICA Jakarta		이종선 소장 외 1인		수원국에 대한 한국의 ODA 정책 및 사업, 성 주류화 전략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LIPI)		Dr. Ninin Karlina 외 7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개발 메카니즘		
Universitas Katolik Indonesia Atma Jaya		Ms. Yustina Rostiawati 외 1인		여성부와 대학 연구소와의 협력체계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07. 9. 19.
출 장 복 명 자 : 정혜선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

2007. 9. 3-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보고자 : 동향분석팀 정혜선 연구원

1. 과제명: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

2. 목적: 수원국 정부-공여기관의 협력체계 사례조사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개발원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3. 참가자: 동향분석팀 정책선 연구원

4. 일시 및 장소: 2007. 9. 3-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날짜	출장일정
9/3(월)	인도네시아 입국
9/4(화)	- Mrs. Agustina Erni, Head of Division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이종선 소장
9/5(수)	- Dr. Surjadi Soeparman, Deputy Minister for Child Protection,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 Ms. Farsidah Lubis, Gender Equality Advisor, CIDA - GTZ 면담 일정이 금요일로 조정됨
9/6(목)	- Ms. Francisca Indarsiani, Programme Officer, CIDA - Dr. Ninin Karlina, Head of Planning Division, LIPI - Ms. Ystina Rostiawati, Center for Societal Development, ATMA JAYA (Catholic University of Indonesia) - USAID 면담이 내부 사정으로 취소됨
9/7(금)	- BAPPENAS 면담 일정이 내부 사정으로 취소됨 - Ms. Ute Jugert, M&E Advisor, GTZ - Ms. Martha Santoso Ismail, Assistant Representative, UNFPA - Mrs. Agustina Erni, Head of Division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9/8(토)	인도네시아 출국

5. 주요 내용

가. 면접조사 질문지

<2007년도 수원국 방문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여성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MDG 달성을 위한 ODA 성 주류화 전략개발”이라는 연구 과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ODA의 성 인지적 분석과 ODA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귀 기관의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ODA 사업을 질과 양의 측면에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에 선진공여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비교연구와 수원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원조의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번 방문조사를 통하여 공여기관과 수원국 정부의 원조 정책과 협력 체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원조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가에까지 성 주류화의 전략과 경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ODA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귀기관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 정책

- 1) ODA에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한 역사적 배경
- 2) 성 주류화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 국제적 젠더 담론의 발전 등
- 3) 법 혹은 지침에서 성 주류화를 어떻게 명시하는가
- 4) 정책 추진의 장애 및 개선 사항

2. 조직

- 1) 성 주류화를 위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 2) 재정,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성 인지 예산 분석은 실시하고 있는가
- 3) 젠더 전문가의 충원 혹은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4) 조직 및 예산, 인력과 관련하여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성공과 실패 요

인은 무엇인가

3. 사업

- 1) 중점 분야, 지역, 주제는 무엇인가: 교육, 보건, 모성보호 등
- 2) 성 주류화 사업과 여성 대상 사업 중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
- 3) 여타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 4) 성 주류화 정책과 원칙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게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5) MDG 달성을 위해 특별히 주력하는 바는 무엇인가

4. 성과

- 1) 가장 성공적인 사례 수원국 혹은 지역은 어디인가
- 2)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사업내용, 프로그램, 투입 대비 결과 등
- 3) 성 주류화 성공과 실패 요인은 각각 무엇이며, 장애 요인 극복 방안은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가
- 4) 개선될 점은 무엇인가
- 5) 사례 수원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모범사례 시범연구 협조 가능성

5. 평가

- 1) ODA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도구가 있는가: 성별영향분석, 보고서 등
- 2) 평가방식에서 권장할 사항

6. 기타

- 1) 교훈
- 2) 웹사이트
- 3) 기타 자료 등

나. 면접조사 내용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협력단의 인도네시아 사무소에는 소장과 두 명의 부소장이 본부에서 파견되어 있으며, 소장은 2년 반의 임기로 파견된다. KOICA에서도 과거와 같이 사업의 수행 방식에 따라 전담 부서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저해한다는 이해에 따라 최근 지역 및 사업의 중점 과제에 따라 조직을 개편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이 같은 새로운 구조와 사업 방식이 조직 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전략은 산업에너지, 농촌개발, ICT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우선순위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난 2006년 개발계획서를 통해 선정한 중점 사업 영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분야의 성 주류화에 대한 논의는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원조는 CGI(consultative Group on Indonesia)를 통해 계획되어 왔다. CGI는 IMF의 주도로 개발계획서와 재무부 등이 함께 하는 공여국 회의로서 지난 2007년 초까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이는 원조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각 공여기관이 중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나 2007년 초, 유도요노 대통령이 더 이상 CGI 회의를 통하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 개발원조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더 이상 공여국 회의는 열리지 않게 되었다. 최근 이를 대체할 무엇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공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post-CGI라는 회의를 주도하기 시작하여 1-2회 정도 개최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경, 원조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각 정부부처에서 계획하는 사업의 shopping list를 개발하여 이를 공여기관들에게 전달하여 차기년도에 관심 있는 사업을 미리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1차 목록을 Blue Book, short-listed 목록을 Green Book,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목록을 Brown Book으로 발간하는 것이 골자인 이 시스템은 2007년 현재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lue Book을 발간한 것은 20년도 더 되었으나 이처럼 다단계로 원조 계획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시도이며, 또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개발계획서가 공여기관과 논의를 주도하지 않고 원조를 요하는 각 정부부처가 각각 공여기관과 사업을 논의하도록 분권화한 것이다. 따라서 부처에서 공여기관과 논의하는 사업계획은 공여기관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수준이 매우 다르며 KOICA와는 사업의

제목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 사무소는 본부에서 파견된 한국인 3인과 소수의 현지 행정직원이 일하고 있다. 면담에는 이종선 소장, 김지훈 부소장이 참여하였다.

캐나다 국제개발청(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CIDA는 본부에서 분야별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전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현지 사무소에서 국가개발계획(country development programming framework)을 수립하게 된다. 현지 사무소들은 관할 지역사무소(geographic branch)와 함께 양성평등 정책의 수행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각 지역사무소에는 젠더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파견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사무소장은 양성평등 정책을 포함한 CIDA 본부의 모든 정책의 수행을 책임지게 된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GFP들은 2년에 한 번씩 아시아 사무소에서 모여 점검회의를 갖는다.

CIDA의 국별 사무소는 1인의 Gender Focal Point를 두는데, 사무소별로 적절한 전문가를 선정하는 순환보직이다. 자카르타 사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9명의 직원이 있으며, 다수가 현지에서 고용된 정규직이다. 사업별로는 현지 혹은 국제 컨설턴트를 고용하며, 사업에 따라서는 젠더자문관(gender advisor)을 계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CIDA에서 현재 개발계획처 및 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Governance Reform Support (GRS) 사업의 경우, 젠더전문가(gender specialist)를 두고 성 인지 예산의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면담조사의 초점을 둔 것은 CIDA 본부를 통해 수집한 Gender Assessment Framework가 현지에서는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 CIDA 사무소에서는 본 연구자가 참고자료로 가져가 보여준 자료를 매우 생소하게 여겼으며,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동 framework이 개발된 것은 2005년이나 지역사무소에까지 전달이 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아직까지 내부에서 소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GFP는 조만간 본부에 이와 관련한 훈련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CIDA는 RBM(results-based management) 방법론을 활용하여 CIDA의 모

든 사업에서 성 주류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GFP 이외의 전 직원이 노력할 수 있게 하는 사업체계를 갖추었다. 물론 gender advisor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 주류화를 담당하지만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tip sheet(예상표)를 개발하여 분야별로 사업의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CIDA는 인도네시아에서 private sector development, environment (access to natural resources), governance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GRS 사업은 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발계획부와 재경부, 행정자치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을 위한 조례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성 인지 예산 제도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예정하고 있다. 자카르타 사무소의 GFP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private sector development에 속하는 사업으로, Private Enterprise Participation (PEP) 사업이다. 동 사업은 캐나다의 산업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여 인도네시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이며, 역시 양성평등 목표를 통합하여 계획되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gender assessment를 수차례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수행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화적인 편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세제가 여성 기업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파리 선언 이후 수원국 정부는 원조의 ownership을 강조하여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부분 수원국 정부는 여성 문제보다 거시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여국의 원조 정책과 괴리가 발생한다. CIDA는 90년대 10년간 인도네시아 여성부의 역량강화와 성 주류화 사업에 공여해왔으나 이제 여성부 이외의 채널을 통한 원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CIDA와 AusAID가 중심이 되어 젠더 이슈를 다루는 공여국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 등 다른 분야에도 비슷한 공여국 포럼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CIDA 직원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파견된 각 공여기관 직원들 및 현지 젠더 전문가들과 함께 비공식적인 젠더 스터디 그룹을 운영할 정도로 열심이다.

수원국 정부와 산하 여러 상대기관은 단연 공여기관과는 다른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젠더를 모든 사업의 영역과 단계에

통합하는 것은 물론, 비공식적으로 많이 만나 성 주류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서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엇인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결국 기득권의 영역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유엔인구기금(UNFPA)

UNFPA는 1971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가족계획과 모성분야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해왔으며 정부의 가족계획이사회,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7차 국가계획(2006-2010)을 실행하고 있으며 6개 지역의 21개 구역에서 정부 및 NGO와 긴밀한 협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성보건, 양성평등, 인구정책, 천연자원, 사회경제적 발전 등을 주요 이슈로 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은 새로운 영역도 다루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 UNFPA 사무총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을 때 여성부 장관이 성 인지 예산 도입을 위한 지원을 부탁한 이후로는 성 인지 예산 분야에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UNFPA는 정부로부터 수원국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평가되고 스스로도 현장 중심적인 접근을 활용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UNFPA가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으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UNFPA에서 활용하는 PROBA 방법론과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에서 기인한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한다. PROBA란 problem-based approach의 약자로서, 1차적으로 성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성 문제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 현행 정책을 분석한 뒤, 그에 따라 새롭게 목표와 전략을 세워 대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UNFPA는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에 GFP를 임명하여 효과적인 이행평가와 환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UNFPA는 정부 기존 체계에 최대한 잘 융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UNFPA는 Program Component Officer를 계약하여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에 파견함으로써 정부와의 최적화된 의사소통을 담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

재 여성부에 파견된 Lany Harijanti의 경우, UNFPA와 5년 계약을 맺고 여성부로 매일 출근을 한다. 이같은 방법에는 물론 단점도 있는데, 파견 담당관은 UNFPA와 여성부에서 진행되고 계획되는 모든 사안을 파악하여 쌍방에 원활히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이 매우 크고, 상부가 양측 모두이기 때문에 업무와 정체성에 혼선이 오기도 한다.

독일개발협력(GTZ)

GTZ은 1975년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협력은 1958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GTZ의 중점사업은 보건, 교통, 경제개혁, 분권화이며, 기후변화 등도 다루고 있다. 기존에 GTZ은 국별 사무소마다 gender focal point를 꼭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4개월 전에 지명된 Ute Jugert가 첫 번째 GFP이다. GFP는 조직 내 및 모든 사업에서의 양성평등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GTZ에서 보는 GFP 제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순기능으로는 양성평등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조직 내 다른 직원들이 양성평등 목표 달성을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무의식중에 여기게 되는 역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Worldbank, DFID, GTZ, ADB 등은 지난 4월 방콕에서 공여국간의 정책 조화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금도 계속 follow-up을 실시하고 있다. 동 회의에서는 파리 선언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강조가 너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성 주류화를 위한 공여국의 전략 개발과 조화 추구의 방법론을 논의하였다.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및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인도네시아 여성부는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부(ministry)의 성격을 갖추게 된 것은 최근이다. 기존에 여성부는 여성의 역할(role of

women)에 방점을 두었으나 1999년 지금과 같이 여성의 세력화(women's empowerment)를 그 기능으로 정립하였다. 아동보호의 기능을 추가하여 건강, 교육, 정치, 경제활동까지 5개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모성보호 등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지방정부 소속 행정자치부 사무소에 Women's Affairs Unit을 설치하고 국장(director)급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여성부는 정책을 마련하고 조정, 평가, 대통령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직접 정책을 이행하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난 2000년 국가개발계획의 성 주류화를 명하는 대통령령 No.9/2000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정부기관은 개발계획과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 성 주류화를 추구해야 하며, 여성부가 이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

여성부는 내부에 연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질 좋은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이를 해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의 경우,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 하겠다. 하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아직도 성별 분리 통계 생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부를 설립하면서 국공립 및 사립대학에 속해있는 여성연구소는 정부를 보조하여 정책연구 및 자문의 역할을 위임받게 되었다. 이렇게 여성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한 대학 연구소가 120개 이상이 있으나 실제 여성부에서 연구용역을 위탁한 사례는 많지 않다. 여성부는 연구소의 연구역량이 낮고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이들 연구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고 한다.

여성부 파트너 연구소 중 하나인 Atma Jaya Catholic University의 Center for Societal Development Studies를 방문하였다. 재정적 취약성과 연구 전문인력 부족의 악순환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부에 따르면 비단 동 연구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파트너 연구소들이 비슷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부는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원(LIPI)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Ministr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산하의 동 연구원은 지구과학, 생명과학, 기술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등 4개 분야를 아우르는 국립 연구원으로서, 전국에 분야별 연구소가 흩어져 있다. 그러나 동 연구원

은 과학기술 분야에 좀 더 치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보다는 기술연구에 전문성이 있으며 여성 분야 연구자는 전 영역과 지역에 흩어져 있어 하나의 구심점을 마련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별개의 부처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구성이나 기능의 변화를 피하기도 쉽지 않다. 큰 부처에서는 따라서 부처 직속의 연구소를 따로 두고 LIPI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여성부는 그동안 여러 공여기관의 도움으로 내부 역량강화 및 성 주류화 등을 추진해왔다. 90년대 10년 동안 캐나다의 CIDA가 여성부를 지원했으며 현재 간접적으로 성 주류화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호주의 AusAID가 여성부의 가장 큰 공여기관으로서, 현재 여성부와 성 주류화 Phase III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Phase는 3개년으로 구성되며, 3년을 마무리한 이후에는 담당자와 공무원 간에 멘토링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외 ADB, UNDP, UNFPA 등이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2003년 대통령령 NO.132에 따라 정부는 매년 예산의 20%를 교육, 15%를 건강보건, 5%를 여성과 아동에 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와 같이 예산이 계획, 집행된 바는 없으며, 여성 분야는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성부는 이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여성부는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이나 관련 M&E 방법론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따라서 여성부는 한국의 KWDI와 같은 기관을 모방하여 LIPI의 역량강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LIPI가 여성 분야에서 연구 및 정책개발 전문성을 확보하여 여성부의 think-tank로서 역할할 수 있기를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LIPI의 구조적 한계도 크기 때문에 여성연구소의 설립은 어려울 것이며, 여성연구포럼이나 컨소시엄의 형태를 꾀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여성부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물은 장관을 보좌하는 정책자문관(policy advisor)이다.

여성부는 베이징 여성대회 이후 모두 성 주류화만 강조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것을 문제라고 본다. 아직 여성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공여국이 파리 선언을 무시하고 공여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방법론만을 고수할 경우, 수원국의 ownership은 지켜질 수 없으며, 실제 많은 공여기관에서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적절한 의사타진 없이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수원국이 말과 같이 계획적으로 개발정책을 펴고 있는가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이 여성부의 힘이 약한 국가에서 수원국 정부가 여성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수원국의 ownership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 여성 문제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CIDA와의 면접조사에서 이 부분이 강하게 비판되었으며, 반면 GTZ과의 면접조사는 정 반대로 수원국이 충분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국의 의사에 따라 모든 사업을 성 주류화 전략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었다.

면담조사에 응한 인원은 총 3인으로 Dr. Surjadi Soeparman, Deputy Minister for Child Protection 외 Mrs. Agustina Erni, Head Division of Foreign Affairs, Ms. Wiwik Kristiyanti이다. Dr. Surjadi Soeparman은 대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KOICA 연수에 참여하는 등 한국에 3번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Ms. Wiwik Kristiyanti도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KOICA 연수를 2006년에 참여한 바 있다. Mrs. Agustina Erni는 지난 2006년 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본원을 방문한 바 있는데, 당시 방문을 통해 진흥원과는 KOICA 연수 외에 여성부 및 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별도의 연수를 계획하여 2007년 5월 실시한 바 있다고 한다.

6. 수집자료 목록

Indonesia Gender Assessment, 2006, ADB

Pengarusutamaan GENDER, 2005, UNFPA

Gender Equality & Public Sector Capacity Development, 2006, CIDA

7. 관련인사목록

- Mrs. Agustina Erni, Head of Division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agustina_erni@hotmail.com,

+ 62-(0)811-921-431)

-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지훈 부소장(john@koica.go.kr,
+61-21-522-7771)

- Ms. Francisca Indarsiani, Programme Officer,
CIDA(francisca.indarsiani@international.gc.ca, +62-21-2550-7873)

- Dr. Ninin Karlina, Head of Planning Division,
LIPI(ninin.karlina@bpk.lipi.go.id, +62-21-522-5711 ext.451)

- Ms. Yustina Rostiawati, Center for Societal Development, ATMA JAYA
(Catholic University of Indonesia)(yustina.rostiawati@atmajaya.ac.id,
+62-21-5703306 ext.527)

- Ms. Ute Jugert, M&E Advisor, GTZ(ute.jugert@gtz.de, +62-21-5292-0029
ext.101)

- Ms. Martha Santoso Ismail, Assistant Representative,
UNFPA(ismail@unfpa.org, +62-21-3141308 ext.306)